

▶과학기술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는 자명한 사실

-김도연 위원장님의 발표처럼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임

-원자력연구소와 KIST 등을 설립하고,적극적으로 지원한 국가 지도자들이 더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현실임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사회 지도층이 좀 더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봄

▶과학기술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의 주체들 모두가 변해야 할 시점

-국책 연구소들이 국가 아젠다를 수행해야 하는데 중장기 프로젝트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은 너무 안타까움.인문사회 연구소나 이공계 연구소 모두 같은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들 함.단기 성과를 내야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임.KDI의 경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미래를 예측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제를 했다가는 살아 남기 어렵다는 것임.

그래서 국책연구소 주변 환경과 주체자들 모두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무원=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임.국책 연구소를 손아귀에 넣고 주물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음.

과학계에서는 온갖 규제로 손발이 묶여 있다고 하소연들 하고 있음. 성실실패자 보호 등 선진국에서 좋다는 제도는 모두 도입은 해냈는데 실효성 있는 제도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임.PBS,평가,3년 마다 재계약,연구비 집행,원장 임기 3년 등 과학자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온갖 그물을 이제 걷어 내야 할 때임.

지원은 하되 규제나 간섭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출연연 개편이 화두

국과위 밑으로 18개 연구소를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연구소 구성원들과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정치권도 야당과 여당 할 것 없이 정관을 없앤채 이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서상기 의원은 정관을 없애지 않은채 이관하는 대체 방법을 하고 있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지 않겠음. 국과위나 과학계가 서로 잣대와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중요한 것은 과거 CDMA나 TDx, 반도체 등의 연구 성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이들 성과가 출연연과 기업 합작품으로 나온 것임.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님.

그런데 최근 들어 출연연에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함.왜 과거에는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오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과거에도 출연연 시스템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왔지 않았나 하는 것임.

PBS가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됐으니 벌써 15년은 넘은 것으로 일추 계산됨.출연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중에 하는 말의 모든 원인을 PBS에 돌릴 일은 아니지만 출연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틀림 없는 제도임.

KIST가 아직 소규모 소위 '대기업'이 되지 못한 것도 출연연 탓으로 돌리는 분도 봤다.그게 어디 출연연 탓인가.정원 묶어 놓고 못 늘리게 해 비정규직으로 써서 그런거다.생명연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 볼 때 출연연 문제는 국가 아젠다 발굴을 제대로 못하고, 규제를 늘리는 등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큰 것으로 보임.

-과학계=대외적으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평을 받는 것을 탐탐으로 모두 돌릴 수는 없는 것임.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계를 위해 무지하게 애를 쓰신 분이다. 연구비 16조원으로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애정을 충분히 표시한 것으로 본다.그 이하는 과학계와 행정부의 몫임.

현실에 너무 안주 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차체에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변신에 대한 전제=정부와 과학계가 손 잡고 대화와 타협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곤란함. 출연연은 현재 공공기관 관리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기 어려움

▶과학계는 출연연만 있는 것은 아님

-출연연은 16조원 중 4조원을 씬.나머지는 대학과 준 국책연구소 등 온 갖 군데서 다 쓰고 있음

-출연연만 손 보려고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꺼번에 검토해 종합적인 개편 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연구재단과 같이 연구비 나눠주는 곳만 16개 기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가 막혔다.이런 곳을 통폐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국과위의 위상 잘 정립해 가야

-국과위가 명실상부하게 국가 과학기술 콘트롤타워가 되려면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해야 함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과학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도 하고, 환부는 도려내기도 하는 등 종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임

-현재 여당과 야당 할 것없이 국회의원들이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를 다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다니고 있음

-그렇게 되면 국과위와 어떻게 충돌할지도 모르는 일임.그 때 또 어려움에 봉착하지 말고, 지금 자지를 잘 잡아놔야 할 것임.